FX Market Daily

2024-08-28

전일동향

전일대비 4.20원 상승한 1,331.00원에 마감

27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4.20원 상승한 1,331.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20원 상승한 1,328.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잭슨홀 직후 낙폭에 대한 되돌림 및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선호 약화로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1,330원 부근에서 매도 물량에 추가 상승이 제한되며 1,331.0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4.5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19.82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28.00	1335.00	1328.00	1331.00	1330.40
엔화	917.77	924.78	917.25	924.44	-
유로화	1480.77	1490.78	1480.31	1488.11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27	-5.74	-12.94	-23.35
결제환율(수입)	0	-4.85	-11.16	-19.92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글로벌 약달러에...1,32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7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31.00) 대비 3.75원 하락한 1,324.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파운드화 강세와 미 고용시장 평가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운드화는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이었던 BOE 총재 발언에 주목하며 강세를 보였다. 베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있지만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며 너무 빨리 또는 많이 금리를 내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영국 정부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깜짝 증세안을 발표하자 국채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영국 국채가 급등한 점도 파운드화 강세를 견인했다. 달러지수의 11.9%를 차지하는 파운드화는 0.55% 상승했으며, 달러화지수는 100.5대로 연저점 근처까지 하락했다. 한편,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에도 설문조사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의 응답수가 증가한 점도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위안화, 엔화 등 주요 아시아 통화가 강세로 돌아서며 금일 환율은 하락 분위기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출업체 추격매도 등은 환율 하방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25.00 ~ 1333.00 원

체크포인트

-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065.54 억원
-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75원↓
- ■ 美 다우지수 : 41250.5, +9.98p(+0.02%)
-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1.35 억달러
-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2782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